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나라사랑 정신 기린다

호국의승·순국선열의 닛 추모
단일 전각 중 국내 최대 규모
11월 2~3일 현판식·문화축제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기획전시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스님)에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순국 의승군을 추모하는 ‘호국대전’이 건립됐다.

국가유산청 사업 일환으로 7년의 노력 끝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름 없는 영웅들의 닛을 추모하는 공간이 문을 열게 된 것.

호국대전은 순국선열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내년 사월 초파일까지 대흥사가 소장한 보물 등을 기획·전시할 예정이다.

●7년만에 완공…축하행사 풍성

해남군에 위치한 대흥사는 호국대전 건립을 기념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대흥사 호국대전 및 표충사 일원에서 현판식 및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 및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지원, 정청래, 이현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호국정신의 가치를 되새기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일 오전 9시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기념 표충사 추계제향을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손준호·김소현의 공연과 중

묘제례악, 김소영 작가의 글씨당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과 함께 법요식, 현판제막식, 국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인 해남 대흥사는 우리나라 대표 호국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팔도도총섭으로서 의승군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종통이 이어져 오는 곳이다.

서산대사의 유언에 따라 입적 후 금란가사와 발우 등을 대흥사에 모시고 있으며 경내 서원인 표충사가 건립돼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처연대사의 영정이 봉안되고 정조대왕의 친필 사액이 하사돼 호국사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흥사 호국대전은 이같은 대흥사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의승과 순국선열 및 이름 없는 영웅들의 닛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776㎡ 단일 전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지난 2017년부터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7년여의 기간을 거쳐 건립이 완료됐다.

●국난극복 상징물 등 전시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을 기념해 오는 11월2일부터 3일까지 현판식 및 문화대축제가 열린다. 작은 사진은 해남군 두륜산 일원에 위치한 대흥사 전경.

호국대전은 현대적 의미의 표충사로서 나라사랑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선양해야 할 순국선열들의 가르침을 전승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판식 이후 내년 사월 초파일까지 조계종불교박물관과 총무원 문화부의 협조로 국가유산청이 보유한 괘불탱 아카이브 전시 기획전과 대흥사에서 소장한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1547호) △서산대사 금란가사 등 정보들에 대한 기획전시도 진행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제작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후기의 보살상 양식을 계승한

조선 전기 보살좌상으로 평가돼 지난 2008년 보물로 지정됐다.

형태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는 윤왕좌(輪王座)를 취하고 있다. 타원형 얼굴에 아래로 살짝 내려뜬 눈, 포물선을 그리는 눈썹에서 연결된 오목한 코, 약간 미소를 머금은 입 등 온화한 느낌을 준다. 목 바로 아래 세줄로 이뤄진 연주문 목걸이를 두르고 좌우대칭으로 양 가슴까지 길게 ‘U’자형의 영락장식이 늘어져 있다.

선조대왕이 하사한 서산대사 금란가사

는 황금색 바탕에 팔길상문(八吉祥紋)을 표현한 직금단(織金緞)으로 된 겹가사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위업이며 한국불교사에 깊이 조명되어야 할 성보로 평가받고 있다.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은 “두륜산 대흥사에 오시면 이곳이 왜 서산스님이 귀의처로 정한 성소이고 한국인의 영적 성지인지 알 수 있다”며 “을 가을 꼭 가보고 싶은 두륜산 대흥사를 방문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웅·해남=전연수 기자

금강골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동상 수상

해남 금강골에 조성돼 있는 ‘금강골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와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금강산 산책로 입구에 조성된 금강골 화장실은 2022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 1월 신축했다.

금강골은 해남읍 주민들의 산책로 및 쉼터로 연간 15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낡고 협소하며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용

객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외관과 함께 화장실 크기를 기존 7평에서 27평으로 확장하는 등 이용자 편의 배려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됐다.

화장실 입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에는 자동문 버튼, 안전 손잡이, 비상벨, 대변기 물 내림 자동센서 등이 구비되어 있다.

유아용 의자, 기저귀 교환대, 냉난방 시설도 갖췄으며 화장실 내부에는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경보기가 마련돼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남도광역추모공원, 2026년부터 ‘플라스틱조화’ 반입금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추모시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에 나섰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6년 11월부터 추모공원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일제 금지할 방침으로 앞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 추모객에 이같은 사항을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추모공원내 플라스틱 조화가 썩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생화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형 ESG실천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설묘지를 포함해 묘역에서 현화할 때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은 공원 홈페이지에 생화 사용 안내문을 게시하고 공원 이용자 4180명에게 매 분기 개별 안내 문자 발송, 2026년 설·추석 명절 때 생화 사용 캠페인 및 무료 나눔 행사 실시, SNS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 추모객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함께 생화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서남권 지역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추모 공간으로써 인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생화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배추 최대 산지’ 해남, 김장 배추 수급 ‘이상무’

11월15일부터 본격 수확 “내달 20일 이후 김장 권장”

국내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이 배추 생육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김장배추는 정식기 폭염의 여파로 배추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식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가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으나 결구가 시작된 현재까지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2259ha, 겨울배추 1998ha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김장용 배추 수확은 11월15일경부터 본격화할 예정으로 해남배추 출하 이후에는 배추가격도 안정화되면서 김장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20일경부터 김장을 하면 가격 부담도 덜고 충분히 결구가 진행되어 튼실한 해남배추를 받아 볼 수 있다.

해남군은 국내 최대 배추 산지로서 김장철 물가안정과 국민 안전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다는 공감대를 모아 차질없는 김장배추 생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지난 24일 마산면 배추재배 농가 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수확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김장철 배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배추 생산자협의회와 절임배추 협의회, 재배 농민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배



해남군 관계자들이 배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추 작황이 완전히 회복하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배추 안정 생산과 적기 공급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이후 배추 생장 피해를 우려, 배추 재배 전 면적에 대한 방제 및 영양제를 공급하고 배추 생육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을 실시해 왔다.

이는 지난달 집중호우 이후 배추 작황 점검을 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해남방문시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해남군의회 이성욱 의장과 군의원, 농협 관계자들까지 한목소리로 김장 배추 안정 생산을 위한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해남배추는 다른 지역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배추 속이 짙 차고,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영양가가 풍부하다.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물러지지 않고, 단맛이 나는 아삭한 식감으로 명품 배추로 불리고 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배추 특유의 단맛이 강해지고 속이 단단해지는 만큼 일반 가정의 경우 11월20일 이후 김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국민들의 김장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해남군 모든 농민들이 배추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고품질 배추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해남배추가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1월20일 이후로 김장일자를 잡아 편안하게 김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